

#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

(Nurturing the Next Generation of faith)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 78:4)

미국 성인 중 12퍼센트는 노아와 잔다르크(Joan of Arc)가 부부라고 답했으며, 82퍼센트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라는 말이 성경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 (born-again Christian)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무려 81퍼센트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성경 말씀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50퍼센트는 소돔과 고모라가 부부라고 대답했으며, 60퍼센트의 미국인들은 십계명 중 다섯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이제 성경 문맹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경말씀이 우리의 사고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출석해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고, 심지어 셀모임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세속적인 가치관과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경말씀이 사고, 판단, 행동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엉뚱한 것을 믿는 것이지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자신의 신념을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자신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되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 78:4)

시편 78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모든 일을 가르쳐, 우리 자손들이 이를 잊지 않게 하리라.”**

**“I must recount the past deeds so that our children do not forget.”**

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 그의 능력과 기적을 빠트리지 않고 후손들에게 가르쳐 기억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자신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전하겠다고 하는 “현 세대” 역시 바로 이 가르침을 그들의 조상들로 부터 전수받았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things that we have heard and known, that our fathers have told us)**

지금 말하고 있는 “현 세대”도 그들의 아버지들로 부터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을 듣고, 배워,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들의 “다음 세대”였던 그들이 “현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현 세대”가 자신들의 자손인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이 그들의 아버지로 부터 가르침 받았듯이,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이 배운 바로 그것을 전할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 오랜 세월을 이방의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자손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The Defiance**는 나치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던 1941년 벨라루스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유대인 비엘스키 형제는 눈 앞에서 독일군에 의해 부모가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부모를 죽도록 밀고한 마을 사람을 죽이고 숲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숲 속에 많은 유대인들이 피난해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들을 이끌게 됩니다.

언제 독일군에게 발각되어 학살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참혹한 박해와 학살을 피해 숲 속에 몸을 숨겼던 유대인들은, 이 숲 속에서 학교도 만들고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 축제를 여는 등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투쟁을 계속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숲 속에 숨어있다는 사실이 나치에게 알려지면서 이들을 죽이기 위한 총공세가 펼쳐지고, 비엘스키 형제는 숲 속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강을 건너고, 늪을 지나 국경을 넘어 탈출 하게 됩니다.

비엘스키 형제가 이렇게 해서 구한 유대인들은 모두 1,5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 리더인 토비아 비엘스키는 숲에 있는 유대인 피난민들에게 절대 임신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합니다.**

열악을 넘어 극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그 아이를 데리고 독일군을 피해 국경을 넘는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려진 명령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을 따를 경우, 이 공동체는 현 세대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수는 있어도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결국, 미래 또한 없습니다.

**생존은 가능하나 미래는 없다. 이것이 바로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임신과 출산은 불가능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있는 어린 아이들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이 나치를 피해 숲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들은 몇 개 남지 않은 감자로 연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독일군에게 발각되어 몰살을 당할지, 내일 식량이 떨어져 굶어죽고 병들어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이 조상들로 부터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쳐 기억하게 하는 것이 생존보다 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의 모든 일을 가르쳐, 우리 자손들이 이를 잊지 않게 하리라.”

“I must recount the past deeds so that our children do not forget.”

이것이 바로 그들이 따랐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아무런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날마다 그저 앉아만 있다가 시간만 보내고 오는 것을 안다면 부모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그날로 그 학교는 항의하는 부모들로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이 강단을 차지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당합니다.

성경은, 당장 쓰레기통으로 던져지지 않는다고 해도, 유리로 된 진열장 속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놓여있습니다.

펼쳐서 읽지 않기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말씀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들 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가르쳐지고, 전수될 수 있을까요?

**현대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성경을 더 이상 읽지도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의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정치, 경제관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출석하는 교인이, 정계의 주요한 위치에 있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된다고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배워 나의 기준이 아닌, 성경적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이 사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성공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명은 물론이고, 나아가 바로 피츠버그, 대학가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 파송하는 것입니다.

수 많은 이민교회들이 젊은이들 없이 노인들만 앉아 예배드리다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유럽, 이태리의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노인들 몇몇이 남아 지키다가 건물을 유지할 힘도 없어지자 교회를 팔아 버렸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예배당이 이제는 술집이 되고, 체육관이 되고, 심지어 모스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가르치려 해도,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젊은 제자, 디모데와 에스더 전도회에 속한 젊은 가정들의 어린 자녀들을 비롯해 수 많은 다음 세대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교회에 발을 끊었던 청년, 대학생들이 유학생이 되어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훈련하여, 파송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헌금,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시간은 이와 같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로 훈련하는 일, 그리고 이들을 다시 파송하는 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어떤 이유에서건 이 일을 하는데 실패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이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 78:4)**

**이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과거의 모든 일을 가르쳐, 우리 자손들이 이를 잊지 않게 하리라.”**

**“I must recount the past deeds so that our children do not forget.”**

교육자이자 작가인 Ken Robinson이 사는 곳은 “데스벨리(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계곡은 미국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지역입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4년 겨울에, 죽음의 계곡에 비가 왔습니다.

7인치의 비가 아주 짧은 기간동안 내렸습니다.

그러자 2005년 봄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잠깐동안이었지만, 죽음의 계곡의 바닥이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이것이 입증하는 것은, 죽음의 계곡이 사실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동면 상태였던 것이죠.

표면의 바로 아래 가능성의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꽃이 필 수 있는 적절한 조건만을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유기적 시스템은 조건이 적절하다면 생명은 반드시 탄생합니다.

데스벨리에 내린 7인치의 겨울비가, 그 이듬해 봄에 죽음의 계곡을 꽃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죽은 것 같고, 아무 생명이 없는 그 땅에 실제로는 생명의 씨앗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청소년들 중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은 불과 **3.5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100명 중 96-97명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곧 대학생이 되어 이곳 피츠버그로 올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자녀인 1.5세, 2세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싸움하고 갈라지는 이민 교회에 진저리를 치던 아이들, 믿음을 떠나,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  
겠다던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이 바로 이곳 피츠버그에 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 영어 회중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새로운 생명의 씨앗들입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 냉담하고, 날선 비판을 하며 하나님을 떠난 세대.**

**사실은 그들이 바로 생명의 씨앗들입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유학생들, 연수생들,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쏟아 붓는 재정, 시간, 에너지가 어찌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스벨리에 내린 7인치의 비가 죽음의 계곡을 꽃밭으로 바꿀 수 있었다면, 우리가 바로 이 다음 세대들  
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 드리는 기도와 시간과 헌신은 결코 헛된 것일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

**Nurturing the Next Generation of faith.**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S.H.I.N.E 비전의 네번째 사명입니다.**

## Cell Bible Study

### 마음의 문을 열며

“생존은 가능하나 미래는 없다.”

영화 The Defiance에서 숲 속에서 숨어있던 유대인 피난민들이 겪은 딜레마였습니다. 언제 나치에게 발각되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바로 다음 세대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의 모든 일을 가르쳐, 우리 자손들이 이를 잊지 않게 하리라” (I must recount the past deeds so that our children do not forget)고 시편 78편의 시인은 다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십계명을 외우실 수 있습니까? 그 중 몇개나 정확하게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이제 “성경 문맹국”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며,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는 결국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사고, 판단, 행동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성경 대신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10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행동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결국 무엇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3. **시편 78:4절** 말씀을 셀원들과 함께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 말씀은 결국 후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말하겠다는 다짐입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우리 교회는 청년, 대학생들과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보다 더 잘 감당하기 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셀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5. **신명기 6:6-9절** 말씀을 읽어 보세요. 이 말씀은 가정에서의 말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나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만약, 새롭게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삶의 열매를 거두며

S.H.I.N.E 비전의 네번째 비전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 (Nurturing the Next Generation of faith) 입니다. 켄 로빈슨 (Ken Robinson)의 말처럼 데스벨리에 내린 7인치의 비가 죽음의 계곡을 꽃밭으로 바꿀 수 있었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 드리는 기도와 시간과 헌신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젊은이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새 세대가 되도록 이끄는 일에, 함께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